

## 단일기관에서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 분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이소영 · 윤혜은 · 형복진 · 전연주 · 황현석 · 최범순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최의진 · 장윤식 · 방병기

### Analysis of Peritoneal Dialysis Survival in a Single Korean Center

So Young Lee, Hye Eun Yoon, Bok Jin Hyung, Youn Joo Jeon, Hyeon Seok Hwang,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Euy Jin Choi, Yoon Sik Chang and Byung Kee Bang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목적** : 만성신질환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대체 요법 중 하나인 복막투석의 시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에 대한 국내보고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분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방법**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복막투석을 시작한 379명 중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3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성별, 나이, 원인 신질환, 동반질환 유무, 복막투석 시작 시기, 입원 회수, 복막염 회수, 사망 시기,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으로 전환한 시기 및 사망원인을 비교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 311명 중 여자가 154명 (49.5%), 남자가 157명 (50.5%)이었고, 복막투석 시작 평균 나이는  $52 \pm 13$ 세였다. 원인 신질환은 당뇨병성 신증이 117명 (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투석 기간은  $43 \pm 37$ 개월이었다. 관찰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58명 (18.6%), 혈액투석으로 전환한 사람은 39명 (12.5%), 신장이식을 시행한 사람은 27명 (8.6%), 전원된 사람은 21명 (6.7%), 추적 관찰이 안된 사람은 11명 (3.5%)이었다. 사망한 58명의 원인질환은 감염이 22명 (37.9%), 심혈관 질환이 17명 (29.3%), 뇌혈관 질환이 9명 (15.5%), 기타의 원인이 11명 (18.9%)이었다. 입원회수가 5회 이상인 환자는 51명 (16.4%), 입원치료가 필요한 복막염이 한 번 이상이었던 환자는 91명 (29.2%)이었다. 1년, 5년, 10년 복막투석 유지율은 각각 88.3%, 53.2%, 36.4%였고, 환자 생존율은 각각 88.3%, 63.6%, 48.8%이었다.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요인은 원인 신질환이 당뇨병성 신증인 경우가 2.12배 ( $p=0.000$ ), 복막투석을 시작한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1.93배 ( $p=0.001$ ),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가 1.63배 ( $p=0.015$ )이었다.

**결론** : 본 결과는 2006년 대한신장학회 등록 위원회에서 발표한 1년 생존율 91.8%보다는 낮지만, 5년 생존율 37.8%보다는 높았으며, 2003년 USRDS에서 발표한 자료보다도 높았다. 동일기관에서 조사한 혈액 투석 1년, 5년 환자 생존율보다 낮았지만 (각각 93.1%, 68.0%), 10년 생존율보다 높았다 (37.9%).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는 당뇨병성 신증, 고령,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로 파악되었으나, 다기관 연구를 통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복막투석, 생존율

Peritoneal dialysis, Survival